

시정당인사권한을 확대하여...
임핑 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점도 운영
 (광명동점도 1000원, 1000원, 1000원)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청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nergy.co.kr 0801-320-7700

목포여고 '최강 스틱' 대회 2연패

목포여고가 제2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학하키대회 여고부 2연패를 달성했다. 목포여고는 29일 목포시 국제하키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4일째 여고부 결승전에서 강호 부평여고를 맞아 전반 6분 김환희(3년)가 페널티 코너로 첫 골을 성공시켜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후반들어 목포여고는 부평여고의 거센 공격을 잘 막아내며 후반 20분 서다혜(2년)가 필드 사이드에서 올라 온 공을 그대로 골로 연결시켜 2-0으로 승리, 지난해에 이

대통령기 하키 결승...부평여고 2-0 제압 협회장기·선수권 이어 올해 3관왕 위업

이 대회 2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이로써 목포여고는 올 시즌 지난 5월 협회장기 우승(2연패), 7월 종별선수권 우승에 이어 대통령배까지 3관왕을 차지 해 오는 10

월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부평여고는 지난 2000년 제14회 대회 이후 8년만에 우승을 기대했으나 목포여고의 벽에 막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김철 목포여고 감독은 "선수가 12명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체력적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우승해준 선수들이 고맙다"며 "남은 기간 체력을 보완해 전국체전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여고 김환희는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됐고, 김철 목포여고 감독은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9일 강원 정선군 하이원CC에서 열린 하이원컵 채리티 여자오픈 골프대회 2라운드에서 신지애가 퍼팅에 앞서 그린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LPGA 영어 의무화 차별 규정 자멸 행위"

美 뉴욕타임스 보도

미국 여자프로골프협회(LPGA)는 29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소속 선수들의 '영어 사용 의무화' 계획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 스킨턴 LPGA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협회가 소속 선수들의 전문성 개발과 언어훈련을 위해 수년 전부터 해온 일을 단순히 확대한 것"이라며 "효과적인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LPGA 사업과 선수들의 성공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킨턴 대변인은 이번 영어시험 의무화 조치가 한국 선수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협회 소속 모든 선수들에게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면서 "모든 선수들은 언론 인터뷰와 프로모션, 우승소감 발표시 우리의 중요한 고객인 팬과 언론, 후원자들과 영어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순전히 영어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있으며, 만약 선수들이 팬으로부터 그들의 모국어로 인터뷰 요청을 받을때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킨턴 대변인은 또 "투어에 참가한 이들에게 말까지 협회가 요구하는 영어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선수들은 요구수준을 달성할 때까지 투어 참가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히고, 시즌 중에 '모의' 영어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선수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PGA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미국의 주류언론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8일 'LPGA의 나쁜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LPGA의 영어 사용 의무화는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선수를 차별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차별적인 규정을 선수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모욕적이며 자멸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신지애 '안개 때문에' 주춤

서희경(22·하이트)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하이원컵 SBS 채리티여자오픈에서 이블랙 선두를 지켰다.

서희경은 29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골프장(파72·6천479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중간합계 8언더파 136타를 적어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행운을 얻기 위해 지난 달 레이커사이트 여자오픈 우승자이자 친구 홍란(22·민성웨이)의 우승 재킷을 입어 보았다는 서희경은 중간합계 5언더파 139타를 친 2위 김하늘(20·코오롱)을 3타차로 따돌리며 생애 첫 우승에 바짝 다가섰다.

4언더...선두 서희경과 4타차

KLPGA 하이원컵 2R

서희경은 14번홀(파5)까지 버디 3개, 버디 2개를 묶어 1타를 줄이는데 그쳐 불안하게 선두 자리를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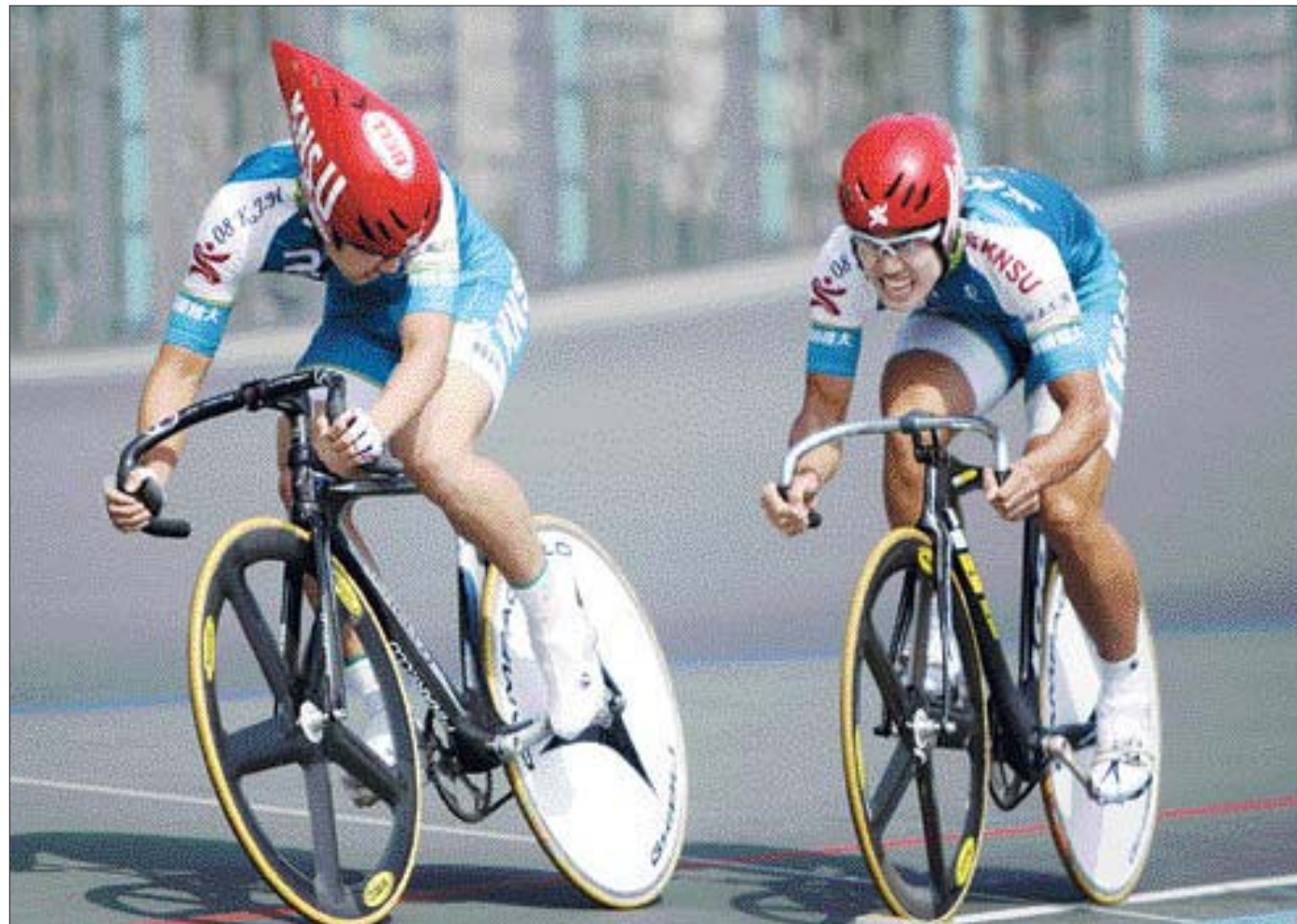
하지만 15번홀(파3)에서 3m 퍼트를 집어 넣으며 1타를 줄인 서희경은 17번홀(파3)에서 8m짜리 버디퍼트를 성공시켜 힘을 냈고 18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잡아내며 타수

차를 벌렸다.

서희경은 "2위와 타수차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는 안개로 인해 경기가 45분 정도 늦게 시작돼 리듬을 잃은 탓인 듯 전반에 3타를 잃는 부진을 보였지만 후반에 버디 4개를 쓸어담는 뒷심을 발휘했다.

이를 동안 4언더파 140타를 친 신지애는 선두 서희경에 4타차로 따라 붙어 마지막날 서희경, 김하늘과 함께 챔피언조에 편성돼 역전 우승을 노린다.



"조금만 더 힘내"

29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국제벨로드롬에서 열린 제9회 인천광역시장애인 사이클대회. 한국체대 선수들이 남자일반부 단체스프린트 3-4위전에서 역주하고 있다. 지난 26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전국 53개팀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31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이영표 獨 데뷔 늦춰질 듯

"조기 투입 부상 등 우려" 도르트문트 구단 밝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이영표(31)의 독일 무대 데뷔전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왼쪽 풀백으로 뛰다 최근 도르트문트로 팀을 옮긴 이영표는 30일 오후 10시30분(이하 한국시간)에 열린 분데스리가 예네르그 코트부스와 정구리그 3라운드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예초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도르트문트 주전 왼쪽 윙백 브라질 출신 데데(30)가 지난 16일 바이엘 레버쿠젠과 올 시즌 개막전에서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영표 에이전트 지센은 29일



"코트부스와 리그 3라운드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이영표의 분데스리가 데뷔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달 13일 열린 분데스리가의 대표적인 라이벌전 도르트문트-살케04 간 베스트팔렌 데비의 중요성을 감안한 위르겐 클롭 도르트문트 감독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센은 "실전 감각이 부족한 이영표의 조기 투입이 자칫 부상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점차 중요한 경기인 살케 전에 초점을 맞춰 최상의 전력을 꾸리겠다는 의중이 깔려있다"면서 "다만 코트부스 전 출전 명단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맨유 호날두 '올해의 선수'

유럽축구연맹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간판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3·사진)가 유럽 축구연맹(UEFA)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에 올랐다.

호날두는 29일(한국시간) 슈퍼컵을 앞두고 모나코에서 열린 UEFA 시상식에서 지난 2007-2008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올해의 선수로 선정돼 트로피를 받았다.

호날두는 지난 시즌 맨유를 프리미어리그와 UEFA 챔피언스리그 '더블 우승'으로 이끈 뒤 두 대회 득점상을 휩쓸었고 시



즌 42골을 뽑은 뛰어난 골 감각을 자랑했다.

영국축구협회(PFA) 선정 올해의 선수 2연패를 달성했던 호날두가 UEFA 최우수 선수

로 뽑히기는 이번이 처음.

맨유 선수로는 지난 1998-1999시즌 데이비드 베컴(현재 LA 갤럭시) 이후 9년 만이고 2006-2007시즌에는 '하얀 펠레' 카카(AC 밀란)가 선정됐다.

하라 감독 "이승엽 승부수 던질 때"

내달 6일까지 부진하면 2군 강등 가능성 시사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의 1군 데드라인은 9월6일이다'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감독이 이승엽이 내달 6일까지 홈런 등 타격 성적을 내지 못하면 2군에 내려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라고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초치가 29일 전했다. 하라 감독은 28일 경기전 "(외국인투수) 번사이드가 베이징진구의 3연

전 최종일(9월7일)에 돌아온다.

이때까지 10일간이 그(이승엽)가 승부를 걸어야 할 기간이고, 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승엽은 28일 도쿄돔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전에서 3타수 무안타, 몸 맞는 볼 1개에 그쳤다. 4-1로 앞선 5회 오른쪽 영영미를 맞고 걸어나간 뒤 상대 배터리로 허를 찔러 2루를 홈친 끝에 득점에 기여했다. 하지만 요미우리는 이승엽이 남은 9일 안에 베이징을림픽 일본과 야구 준결승전이나 쿠바와 결승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결정적인 한방을 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대한배구협회장에 임태희 의원 추대" 고광삼 회장추대위원장

쿠바 카스트로 한국야구 극찬

새 회장 추대작업을 진행중인 대한배구협회 회장추대위원회 고광삼 위원장(광주시 배구협회장)은 29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임태희 의원을 새 회장으로 영입하기 위한 접촉을 마쳤으며 금명일 임정택 위 의장이 수락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前) 국가평의회 의장이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결승에서 쿠바를 꺾은 한국팀을 칭찬했다.

카스트로는 지난 26일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라마'에 기고한 글에서 쿠바 야구 대표팀이 야구의 종주국이자 삼일 야구 천국인 미국을 두 번이나 이긴 사실을 높이 평가한 데 이어 한국 야구팀의 실력을 인정한 바를 밝혔다.

/연합뉴스



30일(토)
 ▲2008 메이저리그(시애틀: 클리블랜드)(07:55·XSPORTS)
 ▲2008 프로야구(삼성: 롯데)(17:00·MBC ESPN), <두산: LG>(16:50·XSPORTS), <우리: KIA>(16:40·SBS스포츠)

츠)
 ▲2008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한신>(20:00·MBC ESPN)
 ▲K 리그(서울: 광주)(20:30·SBS스포츠)
 31일(일)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버튼: 포츠머스)(03:30·MBC ESPN)
 ▲2008 PGA 도이치뱅크 챔피언십 2R(04:00·SBS스포츠·SBS골프)